

전주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미세먼지 저감·대기질 개선 위해 내년 3월까지 대형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점검 등 추진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3일 전했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73개소) 집중 점검, 도로 2개 구간(10.9km, 통일광장교차로~화개네거리 등) 지정 운영 주요 15개 도로 47km 구간 고농도 도로 분진흡입차량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 대형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주요 6개 농촌동 마을에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소각금지 홍보 및 현장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도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전 0시~오후 4시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 $\mu\text{g}/\text{m}^3$ 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mu\text{g}/\text{m}^3$ 를 초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령된다.

위반 시에는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주요 도로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 42대를 통해 단속할 계획이다.

단 저공해조치 차량, 영업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도 조기폐차 3800대(약 63억 원) 매년 저감 장치 325대(약 20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여기에 60억 원을 추가 투입해 4등급 차량까지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구상이다.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지원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도 3700대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들은 내년 1월부터 추진될 예정이고,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및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사회 구현'

전주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성과 공유·보고대회 가져

전주시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는 전주시청 강당에서 올 한해 추진해 온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사업보고대회를 13일 개최했다.

이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정착해 나가는 과정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로서,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인과 결혼이민자, 지역사회 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보고대회는 다문화 청소년으로 이뤄진 하림예술단원들의 판소리 공연으로 포문을 열었다. 기념식에서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꾸준히 통·번역 자원봉사자로 활동해 오며 미인파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도운 유공자 6명에게 표창이 수여됐고 이어 올해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진행된 120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 중 3명이 수기를 발표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주시 결혼이민자는 2800여 명, 다문화가족은 9500여 명으로,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올해 누적 인원 2만 1000여 명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센터는 내년에는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지원반(2개반)을 신규 개설해 결혼



이민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다문화 이해강사 10명을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에 참여시켜 자국의 문화와 역사 등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지훈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올 한해 한국어 교육과 가족통합 교육,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사업,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에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했다. 내년도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다문화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따뜻한 시선이 여전히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전주시 다문화인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 개소

노동부 산하기타 공공기관... 노사상생·중장년 고용지원 등 수행

앞으로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가 출범하며 전주 지역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 호남지사 이명숙 지사장, 이하 '재단')은 완산구 흥산로 261 BYC빌딩 5층 대강의실에서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 개소식을 13일 가졌다.

재단은 각각의 사업들을 지역 밀착형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 및 연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역지사를 설립했으며, 노동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한다.

개소식의 날, 호남지역 노사정 대표 및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맞춤형 고용노동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의 호남지사 출범을 축하했다.

재단은 '노사관계 발전, 고용차별



노사발전재단은 완산구 흥산로 261 BYC빌딩 5층 대강의실에서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 개소식을 13일 가졌다.

개선, 일터혁신, 중장년 경력개발, 전직지원, 국제노동협력'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인천지역에서 노사발전재단 시범지사를 운영하고, 올해 10월 11일자로 5개 지사(서울, 중부, 충청, 영남, 호남)를 정식으로 신설했다.

여기에 호남지사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일터혁신컨설팅, 중

장년 일자리 지원, 차별개선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전복, 광주, 전남, 제주 지역 내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호남지사는 5개 지사 중 중부지사와 서울지사 다음 3번째로 개소했으며, 충청 및 영남지사도 연내에 문을 열 예정이다.

이명숙 호남지사장은 "지역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지원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진단 서비스를 펼쳐,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5개 지사의 신설은 재단의 주요 사업들이 좀 더 밀접하고 촘촘하게 지역에 제공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지역의 특색과 장점을 살린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용노동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립도서관 '우주로 1216' 국립중앙도서관장 수상

전주시는 13일 '우벤져스 워크숍'이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 사례 공모'의 현장사례 부문 장려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을 수상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최·주관한 이번 공모는 도서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며, 주제의 독창성과 혁신성, 추진 방

법 및 활용성 등을 총 8개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 이용자가 주도해 시민의 작업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프로그램인 우주로 1216 우벤져스, 일명 '우벤져스 워크숍'을 운영한 사례를 발표해 트윈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최아영 기자

전주시 완산구,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장기국책사업(2012년~2030년)이다.

완산구는 내년 2023년도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3개지구(동완산2, 동서학1, 대성1지구), 1,129필지(37만222 m^2)를 선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했고, 동 주민센터와 마을회관 등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 절차 등을 설명한 후 의견수렴과 지구지정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향후 '지적재조사 측량, 지적확정예정조사 통보, 경계 결정, 조정금 산정 및 정산, 공부 정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4년까지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5년이다.

공단은 지난 2013년 전북지역 공공기관 최초로 날씨경영 인증을 획득한 이후 4회 연속 날씨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태풍, 지진, 폭설 등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상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임직원과 공유하고, 기상 특보에 따른 메뉴얼을 정비해 시설물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날씨경영을 통해 기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설공단, 기상청 날씨경영 우수기업 선정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4회 연속 기상청 날씨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날씨경영은 경영 효율 증대 등을 목표로 생산과 기획, 마케팅, 영업 등 기업 경영의 다양한 분야에 날씨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 경영 방식이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날씨를 유

가나 환율금리처럼 중요한 경영변수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이 당면 과제로 대두되면서 날씨경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단은 오는 2025년 10월까지 3년간 날씨경영 우수기업의 자격을 갖게 된다. 날씨경영 우수기업의 유효기간은



전주시설공단은 지난 2013년 전북지역 공공기관 최초로 날씨경영 인증을 획득한 이후 4회 연속 날씨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